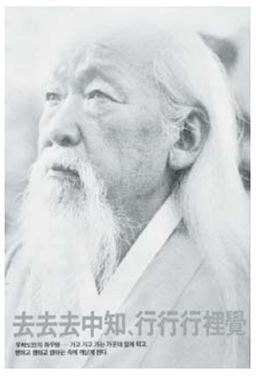
權氏列傳 봉우 권태훈 (鳳宇 權太勳, 추밀공파 33세) 제2편

"去去去中知,行行行裏覺, 가고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고 행하는 속에 깨닫게 된다"



저서

한국경제신문 기사 1988.10.2

1984년에《단(丹)》이란 소설을 통해서 선인(仙人)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1986년에는 한국단학회 연정원을 설립, 1989년에는 수필집《백두산족에게 고(告)함》을 출판, 《천부경(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문화》을 1992년에는《민족비전(民族秘傳) 정신수련법》을 구술, 감수, 출간하였다.

그리고 95세인 1994년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上莘里)에서 별세했다.

유·불·선의 여러 사상을 두루 섭렵하였으나 주로 선도를 바탕으로 하였고, 민족종교인 대종교 사상의 영향도 받았으며, 6세 때부터 시작한 호흡법을 기본으로 평생 선도수행에 열중하였고, 예언·사상 등도 역시 그에 기초한 것이 많았다.

선도수련을 대중화시키고자 선도수행법을 소개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시켰다. 선도는 수행방법과 조직, 논리 등이 '비인물전(非人勿傳)', 즉 비공개를 원칙으로, 수행자들간에만 전달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의적(秘儀的)이고 신비적이었으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봉우 선생은 선도수련의 실제와 과정,선도인들의 활동을 실명(實名)으로 등장시키는 등, 공개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선도가 일반화되고, 또한 조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거거거중지(去去去中知) 행행행리각(行行行裏覺)"이란 문장을 사용하여 행위의 측면을 매우 중시하였다. 즉 지향 하면서 알게 되고 행동하면서 깨닫는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정신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선도의 초역사성, 탈역사인식을 극복하고 역사성을 가진 사회사상으로 변화시켜 민족사에 근원을 둔 수행과 인식을 통해 민족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후천개벽적 문명의 전환과정에서 '코리언'이 세계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역할론이 바로 '백산대운론(白山大運論)', '백두산족론(白頭山族論)'이다. 이러한 문명관은 학문과 수행, 사상적 편력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형성되었으니, 천지도수의 변화, 원상(原象), 산법(算法) 등의 선도적 방법론에도 근거하고 있다.

유.불.선의 기초와 단군사상의 배경 위에 코리언의 기본 정신은 '풍류(風流)'의 선도(仙道)를 고양하여 우리 민족의 발흥에 신선한 한줄기 빛을 던져 준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특히 [연정16법(研精十六法)]은 1928년 무진년(戊辰年) 5월 5일에 작성한 백두산족 고유의 정신수련법 입문으로서 학인(學人) 지도 양성을 위한 교안 중 가장 최초의 원본이 되는 매우 뜻 깊은 저술이다.

내용 중에 나타나는 호흡시간 수는 모두 조식을 전제로 하되, 입식면면(入息綿綿) 출식미미(出息微微)하고 상유일편잔존지기(常留一片殘存之氣:들이쉬고 내쉴 때 항상 한 조각의 남은 기운을 두라)하는 유기(留氣)의 이치가 이미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호흡시간수를 두고 큰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다만 오늘날 그의 서세 2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남긴 정신적 물적 유산이 빛을 발하고 더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그라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우리를 우울하게한다. 이는 본 기자가 취재를 위하여 관계했던 단체들에 연락한 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언젠가 權門을 중심으로 봉우정신의 중광(重光)을 위한 조직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의 사상을 재정립하여 민족의 지향점 또 개인의 건전한 철학으로 삼고, 그가 수련하는 민족전통 양생 비법을 다듬어 '건강유지'의 수단으로 삼아서 '민족적 자산'으로 계승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권오철

대붕(大鵬)의 비상

동양의 고전 장자(莊子)에는 우화들이 많이 나온다.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솜씨에 다들 깜짝 놀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막혔던 곳이 뻥 뚫리고 속 시원한 장면들이 장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 맨 첫 장 소요유(逍遙遊)편에 나오는 대붕(大鵬)의 이야기는 장자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날 북녘바다에 아주 작은 곤(鯤)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작은 물고기가 크면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鵬)이라고 한다. 그래서 붕의 등 넓이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이 새는 비둘기나 참새처럼 그냥 날 수가 없다. 바람을 타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다 기운이 움직여 큰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남쪽 바다란 곧 천지(天池)를 말한다. 보통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제해(齊諧)란 사람은 괴이한 일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제해란 사람의 말에 의하면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물을 활주로 삼아 물 박차기를 3천리나 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날개를 쳐서 9만리 상공으로 솟구친다. 그런 뒤에야 큰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한다.

흔히 어떤 사람이 큰 뜻을 품고 장도에 오를 때 붕정만리(鵬程萬里)라고 한다. 이는 시골 사람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큰 인물로 성장해서 세상을 향해 박차 오르는 모습이 마치 작은 물고기가 이런저런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큰 물고기로 성장한 후 새가 되어 하늘을 향해 날개 짓 하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이 과정에 세 번의 큰 변화가 포착된다. 한번은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성장한 몸통에 날개가 돋아서 새가 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그 덩치 큰 새가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으로 비상하는 단계이다. 먼저는 몸을 키우는 양적인 변화요 그 다음은 물고기가 새가 되는 질적인 변화이다.

이 과정은 생명이 성장하고 도약하고 비상하는 여정을 말한다. 큰 바다는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시키는 생명의 자궁이다. 그러나 육체적인 성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은 질적인 변화를 감행해야 한다. 바다를 박차고 올라 천지(天地) 간의 바람을 타고 광활한 창공으로 비상해야 한다. 만약 이 덩치 큰 새가 비상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질적으로 도약하지 못한다면 그 큰 덩치는 짐이 되어 버리고 만다. 목숨 걸고 날아올라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령 물 괸 곳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만한 힘이 없다. 한 잔의 물을 마루의 패인 곳에 엎지르면 작은 풀잎은 띄울 수 있지만 배는 띄울 수가 없다. 물은 얕은데 배가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람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만한 힘이 없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물을 다 모아 그 물을 박차고 9만리나 올라가야 날개 밑에 바람이 쌓인다. 그런 뒤에 비로소 붕(鵬)은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진 채 아무런 장애도 없이 바야흐로 남쪽을 향해 날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동네서 노는 메추라기와 비둘기는 이런 대붕(大鵬)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저 놈이 도대체 어딜 가려고 하는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저 비웃을 뿐이다.

우리는 있는 힘껏 날아올라봐야 고작 몇 길을 못 올라가고 내려와 쑥 풀 사이를 날아다니고 또 때로는 거기에도 이르지 못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데 어째서 9만리나 힘들게 올라가 남쪽으로 굳이 가려고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도시락 싸들고 들판에 나가는 사람은 세 끼 식사만하고 돌아와도 아직 배가 부르다. 그러나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걸려 곡식을 찧어야 하고,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한다. 그러니 끼니 걱정도 하지 않는 이 조그만 날짐승들이 어떻게 대붕(大鵬)의 비상(飛翔)을 알겠는가.

편집국장 권행완

흥망성쇠의 갈림길, 세(勢)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의 사상적 기반이 된 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 법가를 집대성했다. 진시황이 한비자가 쓴 '오두' 편과 '고분' 편을 읽어보고, 이 사람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했을 정도다. 난세를 극복하는데 제왕학(帝王學)으로써 이만한 책이 없었던 듯하다. 한비자는 제왕이 갖추어야할 통치수단은 법(法)·세(勢)·술(術)이라고 주장한다.

현명한 군주는 법을 공포하고 법만을 오로지 한다. 술(術)은 신하를 통제하는 정치적 기술이다. 때문에 술(術)은 드러내면 안 된다. 세(勢)는 권세이자 세력이며 카리스마이기도 하다.

한비자 공명(功名)편에는 다음과 같이 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한다.

무릇 재능이 있더라도 세(勢)가 없으면 비록 어진 자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 길 골짜기를 내려다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포악한 걸왕이 천하를 다스렸던 것은 현명해서가 아니라 세(勢)가 막중하였기 때문이다. 요(堯)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세 집도 바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천균(千鈞: 매우 무거운 것) 나가는 무게의 물건도 배가 있으면 물위에 뜨고 치수(錙銖)처럼 가벼운 물건도 배를 잃으면 물속에 가라앉는다. 천균이 가볍고 치수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세가 있는 것과 세가 없는 차이이다. 짧은 것이 높은 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위치 때문이며 어리석은 자가 어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세(勢) 때문이다.

저 높은 산꼭대기에 나무가 서 있다. 산 정상에 오르고 보니 그렇게 크지 않다. 높은 곳에 서 있다 보니 산 밑의 골짜기와 들판을 다 굽어본다. 모두 다 발아래이다. 평지에서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저 산꼭대기의 나무까지 다다를 수 없다. 평지에 아무리 큰 바위가 떡 버티고 서있다 하더라도 산꼭대기의 돌멩이보다 높지 않다. 인간이 만든 자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는 군주라는 자리이다. 군주의 자리는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 자리를 거쳐 간 수많은 군주 중에 그래도 그 시대에 밥값 제대로 한 군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에도 난세가 도래하면 난세를 극복할 방안으로 새로운 군주론을 제시하곤 한다. 한비자가 그렇고 마키아벨리가 그렇다. 그만큼 군주 자리는 막중하다. 하(夏)나라 마지막 걸왕은 폭군으로 유명하다. 한비자는 폭군 걸왕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었던 까닭은 순전히 그 자리 세(勢) 때문이었다고 진단한다. 서경(書經)도 마찬가지다. 걸왕은 덕을 갖추지 못하고 위세로 누르려 했으며 학정을 펼쳐 백성의 힘을 소모시킬 대로 소모시켜 국력을 피폐케 했다.(서경) 요임금은 똑같은 군주의 자리인데 걸임금과는 전혀 다르다. 천하의 성군이다. 요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세 때문이요 걸이 폭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세 때문이다.

무거운 물건도 배가 있으면 배라는 세에 의지해 물위에 뜰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바늘이라도 배가 없으면 물속에 가라앉고 만다. 인류는 물속에 침몰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배를 만든다. 시대정신의 방향성을 제시할만한 철학의 배를 고안하고 제도의 배를 창안하며 리더십을 발명한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편집국장 권행완

검교공파 파보 발간 의결

족보는 각 문중마다 가족사가 집대성되어 수권의 책이 한질로 형성되어 발간되는 것이 통상이며 30년(일세대)을 일주기로 재발간하는 것이 과거 상식화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과학이 발달되고 기록문화가 전산화를 미처 따라가기가 힘 드는 시대를 맞이하여 가계의 변화도 크게 출렁이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 권문의 성화보가 족보의 시초이며 권문의 사시(四始) 중 으뜸으로 차지하며 미국의 하버드대학 도서관에도 보관되어 심도 깊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산업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때를 맞이한 것 같다는 것이 그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인 것 같다. 변화무쌍한 작금의 세태에 비춰볼 때 앞날을 예측해 보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지단의장(紙短意長)의 뜻을 간직한 긴 역사의 안목으로 내다보면 해를 영원히 가리는 구름은 없다는 것이 철칙인 까닭에 수백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각 씨족들의 족보가 부단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말간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여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노력 중이다.

긴 인류 역사에 비하면 인간의 일생은 백구과극(白駒過隙)과 같다고 하지 않았던가. 문틈 사이로 순간 스쳐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먼 훗날을 위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파보를 전력투구하여 제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깊이 생각하게 된다.

끝으로 1999년 발간된 검교공파 세보世譜(상하 권)는 한국족보박물관(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참산동 산 34번지))에 2012년 8월 2일자로 기증되어 현재 보관 전시되고 있으며 권문 중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쪼록 검교공파보(檢校公派譜) 발간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100만 족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

검교공파종회장 권태강

추기 : 세보 발간 추진위원장 및 4명의 부위원장이 결정되어 본격적으로 세보(족보) 발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공론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며 구정 후 임시 총회에 진행 방향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보 발간 위원장 권태강

채희숙씨,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제14대 회장 취임식 거행

권건중 대종회 사무총장 부인 채희숙(60·)씨가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제14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6일 오후 화산동 여성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어 충북전통문화협회 제천시지부 채희숙 지부장을 선출했다. 채희숙 신임 협의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신임 채희숙 회장은 1월 15일 오후 2시 여성문화센터 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충북전통문화협회 제천지부(회장 채희숙) 등 모두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광고, 독자투고, 구독 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보는 안동권문의 소통공간입니다.
종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 02)2695-2483~4
FAX 02)2695-2485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 안동권씨 대종회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종회)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